

프랑스 Inovadis의 Highland  
Carat 그리고 NorStone 시스템

# FRENCH CONNECTION

오디오 업계에 브리티시 사운드라는 말은 익숙해도 프렌치 사운드라는 말은 없다. 요리나 와인에서 손꼽히는 최고 국가 가치가 하이파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비단 건너 섬나 리에도 비할 바가 못 된다. 하지만 많지 않아도 프랑스의 오디오나 일렉트로닉스 분야도 높은 수준의 경쟁 능력을 갖고 있으며 Focal-JM LABO나 Triangle, Cairn 같은 업체들은 턴테이블과 퍼포먼스로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양보다는 개성과 질적인 우수함으로 확실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렌치 하이파이 업계에 또 하나의 존재감을 심어줄 업체가 등장한다. Highland라는 스피커 브랜드로 잘 알려진 Inovadis가 그 주인공이다.



**프랑스의 Inovadis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성, 가격 대비 가치 그리고 디자인 면에서 보편적인 음악 재생 기준을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제품을 내놓는 하이파이 토털 솔루션 업체이다.** 선生 업체는 아니지만 스피커와 앰프 같은 하이파이 기기를 직접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주력 브랜드로 스피커 시스템인 Highland, 앰프와 플레이어 등으로 구성한 Carat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이를 세팅할 수 있는 시스템 랙인 Norstone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제품 생산에 앞서 Inovadis는 프랑스 내에서 오디오 및 홈시네마 관련 시스템의 유통 판매와 인스톨레이션 사업을 벌여왔다. 그 기간 동안 이들은 사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운드를 선호하고 어떤 스타일의 디자인을 좋아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해 왔다. 이와 같은 고객들의 생각에 맞춰 가장 적합한 가격대의 제품으로 거실 및 가정 환경에 어울리는 인테리어의 제품 스타일을 찾아냈다. Highland, Carat 그리고 Norstone 이 그 결과물인 것이다.

### 슬림한 모던 스타일의 Highland

이름에서 풍기는 뱐재는 지금까지 중국제 다른 브랜드 네이밍이지만 Highland은 프랑스에 있는 Inovadis의 엔지니어 Antoine Cesbron이 설계한 프랑스 소속 스피커이다. 다만 그들이 원하는 저렴하고 대중적인 가격대를 유지하기 위해 생산 공장은 중국에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생산 원가를 낮출으로써 동급 프랑스제 제품들에 비해 한층 저렴해 질 수 있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원가 절감의 결과를 가져올 뿐 음질과는 무관하다.



Highland의 스피커는 크게 일반 스피커 타입인 Oran과 Aingel, 두 가지 시리즈가 존재하며 서브우퍼로 Dord 시리즈와 홈시네마 폐기지 Seis가 있다. 이외에 인스톨레이션을 위한 벨트인 스피커 Sian도 함께 생산한다.

이 회사 스피커의 공통적인 특징은 현대적인 추세에 맞춰 매우 슬림한, 폭이 좁고 긴 타입의 스타일을 갖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직직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스피커 디자인 및 인테리어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를 고려한 결과물인 셈이다. 실제로 두 시리즈 모두 거실이나 방에 놓아도 크게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며 디자인 또한 인테리어의 심미성도 절대 해치는 법이 없다. 월보이나 레드로즈 마감도 나쁘지 않지만 블랙 글로스 마감의 경우 현대적인 거실에 가장 잘 어울린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 스피커들의 사운드도 생긴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모호함이나 느긋함은 찾아볼 수 없다. 현대성을 추구한 제품답게 사운드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고 맹회해 상당히 뛰어난 사운드를 들려준다. 소구경 우퍼와 인클로저의 적절한 설계로 크지 않은 몸체로도 스케일과 임체감이 살아있는 사운드를 잘 만들어낸다.

무엇보다도 이 스피커 시리즈가 갖는 가장 큰 강점은 스피드이다. 매우 빠르고 날렵하여 클래식이든 록이나 테크노 음악이든 음의 타이밍 포착과 재현에 훌륭한 발놀림을 선사한다. 덕분에 중고에서도 디테일하고 투명도 높은 음의 개성을 더욱 잘 살릴 수 있다.

이런 사운드 개성을 감안하면 매칭 시스템은 좀더 무겁고 중후한 기기로 적절한 타협을 하면 어울릴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기기들보다는 스피커와 유사한 성향의 앰프





CARAT A57 스테레오 앰프

나 플레이어가 더 잘 맞는다. 지나치게 밝고 가는 사운드의 기기만 아니면 스피커 개성을 잘 살려주는 기기들과의 매칭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 투명하고 명료한 사운드 Carat

보석의 무게 단위를 뜻하는 Carat을 이름으로 한 이 하이파이 시스템은 Highland에 의해 약간 늦게 출시된 앰프와 플레이어 그리고 뷰너 등의 일렉트로닉스들로 역시 프랑스 본사의 엔지니어 Antonie Cesbron과 디자인يري자이 회사의 디자인 디렉터인 Eric James의 공동 개발 작품이다.

먼저 스타일과 디자인 면에서는 모던한 Highland 스피커와 크게 다르지 않게 현대적인 개성을 한껏 살려 놓았다. 디테일 면에서는 다소 다르지만 전반적인 컨셉트나 주구하는 방향에 있어서 스웨덴의 또 다른 스타일리스트 Primare와 그 유사성을 드러낸다. 가장 환경에 맞는 하이파이 시스템답게 슬림하며 세련된 감각의 디자인을 뽐낸다. 블랙과 실버 컨트롤의 조화로 이루어낸 단조롭지만 모던한 색상 조화가 인상적이며 전면에 사용한 두께운 고광택 아크릴 패널은 상당한 고급스러움으로 격조를 더한다. 육중하고 거대한 몬스터급의 기계적 이미지의 오디오가 아닌 편안하며 고급스러운 사운드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제품의 컨셉트를 잘 살려낸 디자인이다.

물론 Carat은 외모와 감각만을 내세우는 제품은 아니다. Carat의 제품들 내부를 보면 앰프는 플레이어는 튜너든 모두 충실히 전원부로 시작한다. 토로이얼 트랜스와 오디오 전용 고용량 커피시티 같은 전원부의 안정된 토대를 기반으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논리 정연하고 깨끗한 레이아웃의 설계로 단단한 하이파이 제품의 완성도를 보여준다. 사용된 부품들도 모두 오디오 전용 부품들로 고급 커피시티와 BurrBrown의 고품위 DAC 칩과 OP 앰프 등 선별된 부품들을 사용하고 있다.

인터 앰프인 A57은 채널당 출력 80W@8ohm으로 4ohm 시 150W의 출력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출력이 크지는 않지만 고용량 토로이얼 트랜스포머나 임피던스와 반비례하여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출력으로 비슷한 수준의 앰프들보다 확실히 구동력 및 스케일 재현에 있어서 꽤 깊이 있는 사운드를 들려준다.

같은 시리즈의 CD 플레이어인 C57도 앰프인 A57과 비슷한 수준의 설계 및 완성도 높은 투닝으로 흐트러짐 없는, 단정하고 깨끗한 사운드를 선사한다. 명료도가 높고 투명한 사운드로 확실히 디자인과 어울리는 현대적인 사운드의 개성을 뽐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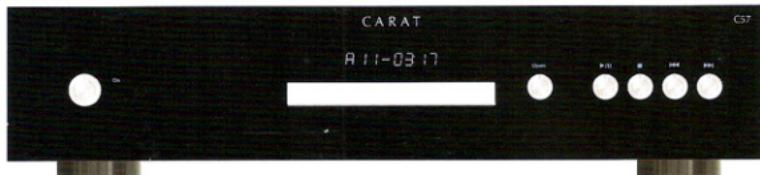
#### 유로 스타일의 디자인 NorStone

Norstone design은 앞서 소개한 두 기기와 달리 Inovadis의 주력 사업이던 인스톨레이션 사업에서 오래전부터 다뤄온 시스템 백 사업 부문의 브랜드이다. 총 4명의 디자이너가 직접 프랑스에서 설계하는 오디오 및 홈시네마 기기들을 위한 백으로 자사의 스피커, 앰프 및 플레이어와 아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자랑한다. 가격과 디자인에 따라 다양한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드 프레임과 강화 유리로 조화롭게 디자인한 Piu가 이 회사의 주력 제품군이다. 종류는 하이파이용으로 설계한 Piu와 홈시네마용인 Piu AV 그리고 강화유리까지 블랙으로 처리한 Piu AV Black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나무로 된 기본 프레임에 층층이 쌓아 올린 패널들은 모두 강화유리를 층당 40~50kg가량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튼튼함을 자랑한다. 기능성도 뛰어나다. 꽉 채워진 느낌의 전면 프레임과 달리 뒷면은 발열이 쉬도록 오픈된 공



고강도 강화 유리와  
나무 프레임을 사용한  
NorStone의  
시스템 백, Piu



CARAT CS7 CD 플레이어

간으로 설계되어 있고 전체 지지 받침 또한 3점 지지 방식으로 안정적인 무게중심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따라서 평탄하고 안정적인 토대 위에 발열도 잘 이루어지게 하여 앰프나 플레이어 등의 기기들이 최적화된 상태에서 동작하도록 해준다.

#### French Sound

마지막으로 이들 시스템 전체를 사용한 사운드에 대한 평가이다. Piu 뒤에 Carat A57 앰프와 CS7 CD 플레이어를 설치하고 Highland Oran 4405 플로어스탠딩 스피커를 연결했다.

30평형 아파트 거실에 세팅한 이 시스템의 사운드는 앞서 소개했던 사운드들의 장점을 모두 모아놓은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낸다. 깨끗하고 투명하며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사운드가 이 세 기기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전반적으로 회사하고 직선적이며 투명한 사운드로 이는 JM LAB이나 Triangle처럼 같은 프랑스 업체들의 사운드와 음색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흔히 약간의 음영이 느껴지는 브리티시 사운드와는 확연히 대비를 이룬다. 마치 피노 누아로 만든 절은 빙티지 와인과 같다. 오래 숙성된 풀바디의 깊고 진한 와인보다는 스파이시하며 약간 하드한 느낌의 깊고 꽂꽂한 개성이 느껴지는 와인 같은 느낌이다. 물론 유연성이나 흔히 일컬는 음악성이라 부르는 무께운 중역의 기름진 느낌은 떨하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투명한 사운드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매력이다.

투명하고 깨끗한 사운드와 함께 이 시스템이 형성하는 사운드스테이지는 매우 입체적이다. 스케일도 비교적 규모 있게 펼쳐지며 악기들의 배치 등의 입장감도 이 가격대의 어느 제품 못지 않게 훌륭하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밝기 인데 흔히 깨끗하고 투명하며 현대적인 사운드의 제품들이 지나치가 밝아져서 고역의 에너지가 귀를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Highland와 Carat의 배치업은 볼륨을 높여도 산화되는 듯한 자극적인 사운드가 나오진 않는다. 디테일, 해상도가 높게 유지되면서 본연의 음색이나 밴드스가 깨지지 않는 안정감 있는 사운드가 큰 매력이다.

그만큼 저역의 도움이 수반되는데 평피침하며 봄박스에 가까운 저음이 아니라 한껏 조여 놓은 타이트한 저역으로 탁월한 스피드 감각을 자랑한다. 재즈의 베이스 연주나 말려 교향곡 같은 대편성 관현악 팀파니의 저역도 무리 없이

재생하면서도 절대 무대를 혼탁하게 만들거나 다른 소리를 끓개는 일이 없다. 특히 가격을 생각하면 아주 매력적인 성능이 아닐 수 없다.

Inovadis가 내놓는 이를 세 브랜드의 시스템은 탁월한 가격 대비 성능과 현대적 감각을 자랑한다. 고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쏟아져 나오는 하이엔드 오디오 기기들과는 달리, 순수한 음악 재생주의를 기반으로 스타일리시한 감각과 높은 완성도의 만들새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멋진 하이파이 사운드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충급 하이파이 시스템 시장에서 오디션을 꼭 치려야 할 제품 리스트에, 떼놓아선 안 될 제품이 등장했다.



Highland의 상위 시리즈인 Oran을 대표하는 모델 4405.

**Tel**  
CONTACT  
수입원  
체스오디오  
02-6337-8008